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85
----------	------

발의연월일 : 2025. 3. 24.

발 의 자 : 김태선 · 윤종균 · 박 정
정준호 · 김주영 · 장철민
한민수 · 김남근 · 위성락
윤준병 · 이용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규정된 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약 70%가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 연령에 해당하고, 사고 후 유자녀를 위한 별도의 국가적 지원책이 없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되는 비율도 55.4%에 달한다는 사실이 발표된 뒤 사회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도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해”를 “손해, 일실수익”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에 규정된 죄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때에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중상해를 입었을 것
2. 범죄피해의 발생 당시 피해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u>손해</u>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배상명령) ① ----- ----- ----- ----- ----- ----- ----- ----- -----손해, 일실 수익-----.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 의11에 규정된 죄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때에 「민법」 제4조에 따 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자녀”라 한다) 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중상해를 입었을 것

2. 범죄피해의 발생 당시 피해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것